

원희룡 장관, 민주당·정의당 정책위의장 면담

- 신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요청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6일(수)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”라고 하며, “금주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밝히며,
 - “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원만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하며,
 - “야당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”고 하였다.
- 한편, 정부는 금주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와 협력하여 최대한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
2023. 4. 26.
국토교통부 대변인